

감사의 글

저에게는 지금껏 절 도와주셨던 많은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선 항상 연구자의 자세로 기쁨보다는 질책으로 제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저의 논문 지도에 열성을 다해주신 송 규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손 장열 교수님과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안병욱 교수님, 그리고 음향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신 전진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직장생활에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기형이, 논문 마무리를 함께 한 동철이, 학부시절부터 항상 절 도와준 승민이, 그리고 대학원 시절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항상 선배인 절 따라준 종주, 정원이, 자료를 찾아 고생했던 정호, 그리고 연구실 생활에 도움을 준 헤인이, 영주에게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뜨거운 태양벌에서도 묵묵히 모형실험을 도와준 학부생 정운이, 대영이, 그리고 어려울 때 항상 곁에서 지켜준 동기 우열이, 성훈이에게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항상 저의 앞길을 지켜주신 서울 연구실의 인호형, 승민이 누나 그리고 입학동기생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경우와 항상 절 도와준 관우, 우람이, 우진이, 영태, 선효, 미정이. 그리고 저의 대학원의 과정에서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준 저의 야구동호회 falcon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되어준 분들이 계십니다.

지방을 떠나 객지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 장거리 출근에도 미소를 버리지 않는 동생 민정이, 떠나면 이국의 땅에서 배움의 길을 열어가는 동생 진아, 이런 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기쁨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분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98 년 12 월

김 민 성